

청소년들에게 권하는 책

출판협회 선정 '이 달의 청소년도서' 93년 4~5월분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김낙준)가 선정하는 '이 달의 청소년도서' 93년 4~5월 분으로 다음 10종(10책)의 도서가 선정됐다. 분야별로는 철학(1종) 문학(5종) 과학(3종) 아동(1종). 재단법인 한국출판공고(이사장 정진숙)는 총1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선정도서 1종당 300부씩을 구입, 전국 각 지방의 공공도서관 132곳을 비롯, 청소년 선도기관, 소년원, 지방문화원 등 300곳에 기증했다.

내일은 늦으리

크리스 포스터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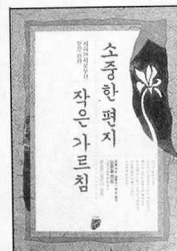
이 시대 가장 중대한 관심사로 부상된 환경 문제를 다룬 작품으로 독자로 하여금 지구 안의 모든 생명체가 소중함을 인식시키는 환경 소설이다. 네명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34개의 짧은 이야기들을 한데 묶는 구성법이 특징적이다.

바다의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40톤급의 암고래, 푸른 숲을 벌목하는 재벌기업 때문에 위기에 처한 2천5백살박이 삼나무, 자살을 시도하는 월남전 참전용사, '행복하니'라는 엄마의 질문에 충격을 받은 프랑스계 여배우. 이들은 각기 다른 삶을 살다가 뜻밖의 상황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이야기. 공해와 분별없는 벌목과 바다의 오염으로 병들어가는 지구의 환경을 조명하고, 약물중독과 좌절의 위기에 놓인 인간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파헤치는 역할을 한다.

언어문화사 / A5신 / 230면 / 4500원

소중한 편지 작은 가르침

임종철 지음



40년을 평교사로서 외길인생을 살아온 지은이가 두머리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는 방법으로 택한 편지들을 모아 엮은 책. 3년동안 두머리에게 보낸 편지를 두고 지은이는 "자손에게 남겨줄 재산으로 편지를 택하였다"고 한다. 소소한 집안 이야기와 생활지혜를 틈틈이 적어 보낸 편지는 그가 살아온 인생행로의 단편을 보여준다.

여섯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첫번째는

살아가는 지혜로서 고부간의 갈등해소 방법과 음식차리기, 책선물과 워드프로세서 권하기 등 실생활에 적용되는 지혜를 담고 있다. 그 밖에 시아버지가 되던 날의 소감, 아내의 네가지 향기, 어려운 학생들로부터 양복을 선물 받았던 얘기, 가족체제도 그려서 걸어놓기,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등 소탈한 삶의 향기와 지혜가 배어나는 책이다. 지은이는 집념의 인생을 통하여 교육계에 큰 공로를 인정받아 상록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동반인 / A5신 / 330면 / 5500원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이야기

김형균 지음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민간설화와 그리스 신화 중에서 재미있고 아름다운 '탄생' 이야기만을 모았다. 자신의 목마름을 잊고 나그네에게 물통을 건네준 소녀의 아름다운 마음이 일곱개의 다이아몬드로 변하여 반짝이는 별이 되었다는 이야기 등이 실려 있다.

이처럼 아름답고 고귀한 복두칠성 이야기를 비롯하여 기쁨·맨드라미·백두산 천지·개구리·희망 등 서른 네가지의 전설을 발췌하여 엮고 있어, 바람과 희망과 풀잎들이 어디에서 연유했는지 안다면 하찮은 생물일지라도 소중히 생각하리라는 교훈적 의도를 담고 있다. 비교적 짧은 동화이지만 청소년들이 읽기에도 무난하다.

동쪽나라 / A5 / 220면 / 3500원

크로스 섹션

리처드 프라트 지음 / 스티븐 비스티 그림



세밀한 그림과 편집이 돋보이는 이 책의 그림은, 중세시대의 성에서 우주왕복선에 이르기까지 실제 설계도와 건축사의 도면에 근거해서 그려져 있다. 특이한 재능을 지닌 미술가 스티븐 비스티는 재치있는 유머와 놀라운 주의력을 발휘하여 스페인의 해적선·갈리온·보잉747·자동차 공장·오페라 하우스 등 18가지의 건축물과 교통기관의 내부를 자세히 보여준다. 여러 그림 가운데 해양여객선과 증기기관차는 책 속에 접어서 끼운 것으로 그림의 폭은 1미터에 달한다.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게 자세한 설명도 덧붙여져 있으므로 제2차 세계대전 때 활약한 U보트의 승무원들의 생활모습, 천만개의 벽돌로 이루어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기초 등 눈으로 보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여 배움을 얻게하는 환상그림책.

진선출판사 / 규의 / 48면 / 7500원

청소년을 위한 생활예절

편집부 편저



이 책은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생활 속에서 올바른 예절의식을 일깨워주어 보다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소년용 예절지침서로 읽힌다. 예절의 근본인 효도를 내세우고, 올바른 효도의 실천을 위해 자녀야할 마음자세와 실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가정이 사랑과 이해의 집단이 되려면 가족관계에서도 예절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전화예절·대화예절·방문예절·편지예절·절할 때의 예절 등 개인예절의 실천 내용을 자세히 적고 있다.

한편 시간과 장소에 적합한 옷차림과 행동 그리고 대화내용에 어울리는 인사말도 알려주는 지침서인 동시에, 이 책은 가정과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공공생활과 국가에까지 예절의 범위를 확대시켜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질서외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성균관출판사 / A5신 / 214면 / 3000원

조선 호랑이 이야기

이가원 엮음



이 책은 연암 박지원의 소설 중에 걸작인 「호질」을 연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집하여 엮은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호랑이 성격의 가지가지'에서부터 '호랑이를 잡는 것'까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는 호랑이는 착하고 싸움 잘하고, 효성스럽고, 영큼스럽고, 날래고, 사납다고 하며 천하에 당할 자가 없다고 한다.

호랑이와 사람 사이에 얽힌 이야기를 보면, 효성지극한 호랑이의 마음씨에 감동하기도 한다. 각 마당 마다 웃음을 자아내며 호랑이의 영특함에 놀라게 된다. 호랑이가 개를 먹으면 취하고 사람을 먹으면 조화를 부린다는 얘기도 들어있으며 그중 여섯째 마당은 강감찬·서화담·곽재우 등 역사적인 인물들과 호랑이를 연결하여 재미있는 설화를 그려내고 있다.

학민사 / A5신 / 294면 / 5500원

겨우 존재하는 것들

김제완 지음



과학의 대중화를 겨냥하여 과학만이 갖는 해석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현대 물리학 에세이. 제1부에서 저자는 소립자에서 우주에 이르는 동안 약 150억년 전에 우주가 탄생되었다고 추정하며 원자핵 속에서는 끊임없이 미립자가 탄생하여 미립자의 세계는 '티끌우주'임을 얘기한다. 재미있는 쿼크이론과 우주의 보이지 않는 물질인 다크 물질의 정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스티븐 호킹의 시공간과 그의 우주관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서, 여러개의 우주들이 별레구멍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위를 갖는 우주를 제공하고 있다. 그밖에 우주의 합성인 블랙홀과 전자장의 파동인 빛과 중성미자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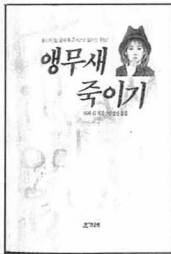
'겨우 존재하는' 미립자를 통하여 세상을 그려내는 추상적인 개념과 대자연의 드러내는

우주론, 소립자에 새겨진 무량우주의 영상이 흥미롭게 구성되었다.

민음사/A5신/184면/5000원

앵무새 죽이기

하퍼 리 지음



자전적 성향의 소설로 1961년 풀리처상을 수상한 작품. 아명이 스카웃인 진 루이스 핀치란 주인공이 일곱살부터 열살까지의 유년시절을 회상하는 플롯으로,

긴장과 암시를 주면서도 어린아이의 천진성과 복잡되어 읽는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

미국 앨라배마 주의 조그만 마을인 메이컴을 배경으로, 변호사 아버지가 흑인인 톰 로빈슨의 사건을 변호하는 것에서 즐거리가 시작되는데, 아버지가 강간범으로 몰린 로빈슨의 결백을 증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심원들은 유죄라고 판결한다. 이렇듯 뿌리깊은 인종적 편견을 지켜보던 스카웃의 오빠 잼은 눈물을 흘리면서 언젠가는 평등한 법의 세계가 올 것이라고 인종타파를 맹세한다. 결국 톰 로빈슨과 미스터리의 인물 부 대들리는 아이들에게 진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며 어른들의 세계로 한 발자국 내딛게 한다

한겨레/A5신/410면/5800원

광개토대왕

강무학 지음



고구려의 19대 왕으로 우리 역사상 영토를 최대로 확장했으며 탁월한 예지와 지략으로 증원의 열강과 백제, 신라를 복속시키고 왜국까지 제압했던 광개토

대왕을 새롭게 조명한 장편역사소설.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기 전까지 짧지만 굵게 살았던 인생역정과 돌노·고운·구룡 세 증신들과의 만남을 그려내고 있다. 어린시절에 많은 풍파를 이겨내고 뜻했던 대로 연나라와 중원의 열국을 제압했으나 안타깝게도 병을 얻어 세상을 뜨게 되는 광개토대왕. 광활한 대륙에 심어놓은 고구려인의 기상과, 균용할거하는

대륙에서 뛰어난 용병술과 지략으로 헤쳐나가는 이야기가 흥미있게 전개된다.

이 소설은 역사적 고증을 거쳐 한 영웅의 인간적인 갈등과 역동적인 상황을 입체적으로 밝혀낸 점이 돋보인다.

고려원/A5신/552면/6500원

하이테크 달걀

현원복 지음



과학 칼럼니스트 현원복의 첨단기술 에세이. 최근 과학기술계의 연구개발 대상으로 떠오른 고온 초전도체와 반소원자 60개로 된 '버키볼'이란 물질을 비롯하여 콜레스테롤이 없는 '하이테크 달걀' 등 1백70가지의 첨단기술을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모두 10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인공현실·퍼지이론·생물공학·자원과 신소재·로봇과 마이크로기계·동식물의 신비한 세계·21세기에는 사라지는 것들 등을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 풀이하고 있다.

특별히 제6장에서 다룬 마이크로머신 기술이 눈길을 끌고 있으며, 이 기술을 응용하면 의료용 초미니 로봇과 유리창도 닦고 피자도 굽는 서비스용 로봇을 만들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 21세기에 전개될 첨단기술은 상상력이 곧 현실로 도래하는 것을 말하며 중간과정에 과학문명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견하는 책.

동아출판사/A5신/314면/5500원

호산방은

30년 후를 생각하는 고서점입니다

— 판매도서목록 —

- 1501 註解龍飛御天歌: 李常春 同和出版社 1946.9. / 50,000원
- 2831 學友俱樂部(第4號): 學友俱樂部社 1939.12. / 150,000원
- 2924 韓國痛史: 太白狂奴(朴殷植) 三平閣 1946. / 50,000원
- 4126 忠北年鑑: 國民日報社 1952.4. / 100,000원
- 4279 尙虛文學讀本: 李泰俊 白楊堂 1946.7. 관권지낙장 / 50,000원
- 4341 城壁: 吳章煥 雅文閣 1947.1. / 200,000원
- 4361 들다리: 李泰俊 博文書館 1944.8. (再版) 저자서명본(?) / 300,000원
- 4369 世祖大王: 李光洙 博文書館 1942.5. (4版) / 200,000원
- 4526 梅竹軒先生文集: 1909. 木版本 2冊 / 300,000원
- 4530 農家指南: 李鍾炫 啓文社 1925.9. / 200,000원
- 4613 漢陰先生文稿: 李德馨 木版本 5冊 / 600,000원
- 4677 氣像圖: 金起林 珊瑚莊 1948.9. / 200,000원
- 4737 海棠花: 金東煥 世昌書館 1942.5. / 300,000원
- 4743 박꽃: 李熙昇 白楊堂 1947.12. / 150,000원
- 4756 詩歌集: 李光洙(外) 三千里社 1930.1 (再版) / 300,000원
- 4817 베드로전후주석: 東洋書院 1913.1. / 200,000원
- 4832 南征記: 筆寫本 1800年代前後(?) / 200,000원
- 4854 李朝實錄朝鮮婚姻考: 藤田東三 大同印書館 1941.12. / 200,000원
- 4859 增訂朝鮮小史: 小田省吾 京城大阪屋號書店 1937.11. / 150,000원
- 4888 성모성월: 元亨根 天主教會 1934.5. (再版) / 100,000원
- 4908 鎭安邑誌: 鎭安鄉校 1925.10. 木活字本 4冊 / 600,000원
- 4911 寶城郡誌: 1924. 木活字本 / 200,000원
- 4913 高麗史研究: 今西龍 近澤書店 1944.7. (再版) / 50,000원
- 4980 圖說朝鮮美術史: 久志卓眞 文明書店 1941.11. / 200,000원
- 5002 Les Miserables: Victor Hugo U.S.A. '887. / 100,000원
- 5096 朝鮮의謎: 朝鮮總督府 1925.1. / 100,000원
- 5425 朝鮮事情(昭和 16年): 朝鮮總督府 1940.12. / 150,000원
- 5463 臨戰의 朝鮮佛敎: 權相老 仁商會 1943.1. / 150,000원
- 5465 刑法大全: 大韓國法部出版 會洞活版所 1906.1. / 300,000원
- 5583 字典釋要: 池錫永 滙東書館 1910.10. (3版) / 200,000원
- 5754 大韓農會規則: 1906年(?) / 200,000원
- 5846 朝鮮統計總攬: 朝鮮經濟研究所 1931.9. / 200,000원
- 6004 朝鮮傳說集: 朝鮮出版社 1940년대(?) 낙장있음 / 50,000원
- 6029 林巨正: 洪命燾 乙酉文化社 1948.7. 6冊 / 1,200,000원
- 6269 朝鮮古代文化의研究: 齋藤忠 地人書院(日) 1943.12. / 150,000원
- 6570 飲水室自由書: 梁啓超 1908.4. 日政時代禁書 / 300,000원
- 6572 滿蒙及熱河誌: 張之亮 漢城圖書株式會社 1929.9. / 200,000원
- 6582 滿洲地誌研究: 田中秀作 古今書院(日) 1930.7. / 150,000원
- 6623 故事通: 崔南善 三中堂 1944.4. / 50,000원
- 6640 九雲夢: 1803. 木版本 癸亥 3冊 / 300,000원
- 6919 簡易朝鮮語文法: 朴勝彬 朝鮮語學研究會 1937.8. / 150,000원
- 7539 東學과 東學亂: 金岸基 大成出版社 1947.1. / 150,000원
- 8008 梅泉詩集: 黃玠 朴愛容商店(後橋) 1932.11. 2冊 / 300,000원

* 본 도서목록은 전산화 작업에 의해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으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 새가족을 찾습니다 ■

도서출판 호산방에서는 한국학 도서를 출판합니다. 영어에 능통하며 출판기획에 자신있는 분은, 이력서 주민등록등본·자기소개서를 보내 주십시오. 멋진 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산방
고서점 · 도서출판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36 한일빌딩 아케이드 7호 전화722-8029 팩스722-6642